

11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1996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요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1

1996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요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2.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3.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6.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7.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8.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6년 11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요한복음 서론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공관복음)와는 달리 독특한 신학적인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포괄적인 상황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처음부터 밝히 드러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그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인 사역에 비중을 두어서 장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한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표적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요한복음은 주후 91-10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횡행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인 20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강력한 표현을 단정적으로 밝히 주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머리말(영원한 말씀의 성육신 하심) / 1:1-14
2. 세례 요한의 증거 / 1:15-51; 3:22-36
3. 예수님의 사역의 증인들 / 2:1-6:71
4.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충돌의 증인들 / 7:1-12:50
5. 예수님의 고통, 죽음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 / 13:1-20:31
6. 끝 맺음말 / 21:1-25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7:30)

예수님께서 초막절, 즉 장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듣는 자의 진지한 태도가 있는지 반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테스다에서 병을 고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 주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온전케 하심으로써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막상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더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듯이 보이자, 종교 지도자들은 하속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더 있다가 보내신 이에게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십자가로 가실 때를 가리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로 가시게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범사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역지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범사를 행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7:38)

예수님께서서는 명절, 즉 초막절의 끝날에 큰 소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장막절, 즉 초막절 의식 중에는 제 사장이 매일 실로암 못에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 성전에 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트리바의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기적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메시아 시대의 영적 축복을 기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트리바의 반석이 바로 자신을 가르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기에게로 나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될 성령의 축복을 강, 또는 샘으로 상징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부터 활동하셨지만, 그 때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엘의 예언처럼 모든 믿는 이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목마른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충만을 받으려면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충만을 받으려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성령 운동은 성령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 ▶ 기도 제목 / 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8:11)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 이까 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계셨습니다.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시면 예수님을 로마법 위반자로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로 치면 사형하라는 것인데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모순되는 것을 노렸습니다. 만약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정죄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죄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며 자신을 고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하면서 방자하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예수님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재범하지 않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담임목사를 하루 속히 보내 주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8:32)

과거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 왔던 것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름 아닌 '자유'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상적 자유 등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을 부자유케 하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적 사슬인 이 죄의 세력에 매여 있는 동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참 자유는 다름 아닌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둘째,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사슬을 풀 수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신이 죄의 죄사슬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사슬을 풀 수 있는 자는 그 자신이 죄가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죄의 줄을 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고 또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며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없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참 자유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9:3)

날 때부터 일생을 캄캄한 흑암 속에서 지내다 예수님을 만나 광명을 찾게 된 시각장애인이 치유받은 곳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첫째, 소망의 자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절망과 실의에 빠져 한 평생을 그저 운명으로 생각하고 지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실로암으로 가서 진흙 묻은 눈을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곧 캄캄한 절망 속에 비치는 한 줄기 소망의 빛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없어지고 변하여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둘째, 순종의 자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또 어떠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의 상황이 너무도 절망적이었던 점입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할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항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기적의 자리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이 하나의 신화로만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기적은 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생기는 일들을 기적이라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오히려 당연지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유무 가능성은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유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과 소망을 심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머물자리를 여러분 속에 비워 두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9:41)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적 소경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영적 실재를 보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는 영원한 세계의 실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캄캄하다고 하여 태양이 없다고 고함쳐 보아야 하늘에는 태양이 엄연히 존재하듯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십니다.

둘째, 자신이 소경임을 모릅니다.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한 성도들 중에도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단지 형식이나 매너리즘에 빠져 종교 생활을 하나의 악세사리 정도로 생각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혹시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은지 심각하고 진지하게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구덩이로 인도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의 경우처럼 스스로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큼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영향력에 대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5:14).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 안일하고 나태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그냥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일정한 헌금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삶들은 실로 위험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신앙인이라 자부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적 본질에 대해서 캄캄한 시각장애인이 아닌지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겸손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10:9)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지역에서는 많은 양들을 치고 있는데 헤브론 산지 좌우에는 험한 황무지와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으며, 양도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양떼를 지키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목축을 주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배경으로 한 본문의 비유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 자신이 전적으로 희생을 통해 구속 사명을 완수하신 목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양들에게 가기 위해서 오직 문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문을 부수거나 문을 뛰어 넘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을 죽이거나 흠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문은 진리의 문이며, 구원의 문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 없느니라”(요 14:6)

반면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만약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온갖 목소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 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오직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10:25)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 현격한 의견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편견과 아집으로 가득찬 대적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불신앙, 질문 태도는 심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은 매우 도전적이며, 적대적이었습니다.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30절)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미치광이로 몰아 붙였고, “참람한 말을 한다”고 곡해하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원인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적도, 교훈도 받지 아니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버림받은 잃어버려진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살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야수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칫 죽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참된 목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참된 목자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의 음성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일꾼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11:25)

세 형제 자매가 행복하게 살고 있던 중 뜻하지 않게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의 대들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인 나사로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들 혼자의 힘으로는 그 슬픔을 극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에 두 자매는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슬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명하심으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썩어버린 시체를 살려 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분업화 될수록 인간은 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절망이라는 한계 상황에 부딪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술을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기도 합니다. 또 드물게는 닥친 환경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절망은 찾아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러한 한계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문제가 닥칠 때 사람을 찾거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소서.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11:53)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증거이며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는 뚜렷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유대인조차 상당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반면에 대적들의 신경을 더욱 과민케 하여 마침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극과 극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 빛되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서운 계략을 세웠습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 줍니다. 그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아 진리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군중의 기세에 위협을 느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회의 결의안은 예수님을 수난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대적들의 계략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말씀과 기적은 더욱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더욱 반항하며 대적하게 만듭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마리아는 …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12:3)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헌신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헌신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첫째, 은혜를 잊지 않은 헌신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라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그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사실을 감안할 때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까? 그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로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맙시다. 둘째, 마리아의 헌신은 힘에 지나도록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지극히 비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값을 삼백 데나리온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으로 그 향유는 한 사람이 일년 동안이나 먹지 않고 모아야 되는 액수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대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값비싼 물질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 행위는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당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님 앞에서 자원하여 종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는 마리아가 받은 것에 비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12:24)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뵈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영광을 받을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이 기회를 제자들이 가야 할 제자도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즉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의 주역이 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제자의도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첫째, 참된 제자는 죽어야 합니다(24절). 예수님께서서는 성도들의 현신적인 죽음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은 생명 상실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십니다.

둘째,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25절). 본문의 깊은 의미는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은 본능적이고 아주 강하지만 성도들은 여기에서 벗어나 마치 원수를 보듯, 불법을 미워하듯, 더럽고 가증한 것을 대하듯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미워해야만 비로소 날마다 자아를 죽일 수 있고 또 초연한 자세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26절).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같은 길에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물을 버려두고, 자리를 털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께 참 제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12:45)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마지막 대중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심정으로 유대인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이지만 스스로 생명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지만 완악한 심령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버려두실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양자 사이에는 결코 중간의 선택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이쪽과 저쪽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결단을 내려서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완악함과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 진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향한 본문의 경고는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경고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진리의 길, 생명의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같은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심을 품고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저버리는 완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돌이키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 전력을 다하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13:15)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몸소 겸손과 섬김의 도를 교훈하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은 누가 메시아의 왕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눅 22:24-30)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3:11)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몸소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타인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책무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은 채로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오로지 출세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겸손과 봉사의 모습을 친히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성도들이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은 구호로 그쳐서는 안되며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적극적인 헌신과 봉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닮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부정과 부패를 소멸시키시고 도덕과 정의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13:21)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생각이 점차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자리 하였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므로 모든 제자들은 심히 당황해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자신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만을 선택하였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참으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뵈옵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으며, 심지어 3년여를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동행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였고 또한 날마다 예수님께서 강론하셨던 말씀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거나 혹은 좀 더 남다른 체험을 가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지는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의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②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 후에는 따라 오리라 』(13:36)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철저히 따르기로 결단하였는지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큰 소리는 불과 몇 날을 지나지 못하여 그만 그 바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마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이 가서야만 했던 그 고난의 가시밭길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결정한 인간적인 생각이 중심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자신의 충정을 다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자,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가 분명히 실족할 것을 예언하셨으며 후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람의 의지'란 이런 것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도,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후에는 따라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소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가 아닌 장래를 보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② 이 나라가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14:4)

본문에는 가롯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과 얼마 후 그리스도께서 떠나셔야 할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예고 등등의 놀라운 말씀들로 인해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근심에 빠진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잠시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것은 장차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이미 그 귀한 영생의 길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심각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는 상당히 다른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도무지 모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가 명확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아무 것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흔들며 낙심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만이 올바른 신앙임을 기억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하소서. ②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4:27)

본문은 모든 성경의 기록 가운데 삼위 하나님으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가장 명확한 기록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에 의해 그의 이름으로만 파송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 이십니다(16, 17절). 이 성령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본문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참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26절).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인간의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우신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 평안의 은혜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거나 또는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영원한 것이며 영혼 깊은 곳에서 샘 솟듯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서 이 평안(화평)의 열매가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갈 5:22). 이 귀중한 성령의 내적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②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사역하는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15:1, 2)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으나 항상 들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그 가지로 하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 나무는 옛날 이스라엘처럼 들포도를 맺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아 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은 제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려고 포도나무를 손질해 주시는 농부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말씀으로 통해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거듭해서 밝혀 주고 있는 것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들도 역시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약속과 그 언약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되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으로 현지인 목회자들이 더욱 많이 배출되게 하소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15:14, 15)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우정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한 두명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만큼 가까운 사이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저 이름만 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는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 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 관계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 관계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 참된 우정의 손길을 뻗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정말로 죄 가운데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살인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들도 주님의 참다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영접하여 주소서. ②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가 계획하는 성지연구소 건립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16:7)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떠날 것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신 후에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였을 때에 근심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가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욱 더 유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혜사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시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에 대하여 미리 예고해 주시는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의에 대하여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박은 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의인이셨습니다.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 경고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사단이 주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았으며,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믿지 않는 자의 죄와 주님의 의로우심과 사단의 심판을 증거해 주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16:33)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들지 않으시고 밝히 말씀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사랑해 주실 것이므로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도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말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자신들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고 질문하신 후에, “그러나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리고 각기 자기 곳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흩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예고해 주신 이유는 바로 박해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흩어질 자신의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시 세상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긴 하지만 결국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며 그들에게도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하여 주님을 배신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소서. ②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으로 중국에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17:3)

본장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홀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기도요(1-8절), 둘째는 지금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에 관한 기도요(9-19절), 셋째는 주님을 믿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20-26절).

오늘 본문은 첫째와 둘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번째 기도에서 주님은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그 영광을 누리야 할텐데, 그것은 우선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주님이 세상을 위해 스스로 포기하셨던 태초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전되고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간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 남아 있지만, 다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남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같은 기도는 참으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영광을 취하실 것이지만, 여전히 제자들과 세상에 남아 있을 성도들을 위해 마음을 쏟으신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로 가득 채워진 반면에 주님의 기도는 자신보다도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으로 수단인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17:20)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을 믿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었으며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되는 것, 그것은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은 주님이 교회에 주신 영광을 보존하는 길이며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교회는 하나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분열과 틈이 성도들 사이에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되는 구역, 하나되는 교구, 하나되는 부서, 하나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영광은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②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일본인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18:5)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그의 하숙들을 데리고 유다와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의 소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지만 군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내로라”고 하시는 말씀의 권세 앞에 엎드려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베드로는 칼을 빼어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이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정된 대로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물리치신 후에 순순히 그들을 따라 가셨습니다. 이제는 엄청난 수욕과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제자의 반응을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가롯유다, 그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 인간적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급한 성격과 과격한 행동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실수가 많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유다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수가 많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감히 입술을 열어 감사를 드립니다.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18:27)

베드로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갔던 행동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가야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의리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용기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알아보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는 질문 앞에서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질문은 세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동일하게 부인하며 심지어는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는 가슴을 치는 통곡의 회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적인 연약함, 하지만 그 중심은 결코 변질되지 않을 때 다시 용서받고 기회를 얻는 것과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통곡하며 회개한 점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역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이 큰 결실을 맺게 하소서.

『...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18:37)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은 합법적인 사형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에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빌라도 앞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어처구니 없는 모순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다며 예수님이 계신 법정에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28절). 둘째, 일시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총독이 지금 영원하신 통치자를 심문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나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38절). 넷째,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범죄자인 강도 바라바를 놓아 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성화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재판에 임하는 유약한 빌라도 등이 이와같이 모순된 엉터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37절). 오늘날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 하지도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진리의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로 인도해 주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19:16)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서 통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로마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면 결국 자신의 출세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 맙니다. 그는 양심을 따르기 보다는 눈 앞에 놓인 이익에 눈먼 사람이요 군중의 함성을 두려워해 자신의 판단을 뒤엎은 유약하고 간사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책임있는 공인으로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가 범한 한 번의 비겁한 행위로 그의 이름을 그릇된 자로 천추에 남게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마다 그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맡은 자리와 위치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평가에 따른 결과도 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한 번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일이 당장은 나에게 손해를 준다 하여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잃는 일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진리를 따를 때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일본에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19:30)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불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추한 마굿간에 인간으로 오셨고, 빌라도의 치욕스런 법정에서야 하였고, 골고다의 험한 길을 오르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리실 때, 십자가에서 굶은 못에 손발이 박히실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피로 씻김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는 모습을 그리며 참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도록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내 편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힘이 드는 일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북한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 속히 허락하소서.

『... 또 무덤이 가까운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19:42)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이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시체에 지나지 않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던 니고데모 등에 의해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무덤에 넣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라는 인물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인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하였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그들은 헛되게 가두었고 헛되게 지켰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해도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잠시 잠깐 후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을 모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모르며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비록 현재의 처지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새벽이 곧 다가올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② 11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12월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96년도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8 과

영생 - 그 영원한 축복을!

읽을 말씀 / 요한복음 14:1-7

찬 송 / 205, 212장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살고픈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생을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차라리 죽음보다 못한 저주의 영생(영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생은 사죄와 부활이 전제된 그리스도안에서 누리는 영생(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넘치는 풍성이 있는 것입니다.

I. 영생에 대한 오해들

1. 심리적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경향들

마음에서부터 죽음의 공포와 최악의 세상에서 벗어남으로 영생을 누리려는 사고방식입니다(불교의 해탈과 니르바나 - Nirvana).

2. 영생이 없다는 사상들

죽음이 생의 끝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인간이라면 사망의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이 사망의 언덕을 통과함에 있어 보통 사람들은 저주스런 고통으로 받아들이지만 영생을 믿는 사람은 마치 문을 열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 가는 것처럼 가볍게 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에 눈을 감고 쉬는 것처럼 잠자리에 드는 것과 다름없이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의 임종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음을 평화스럽게 맞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백 년, 천 년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리하여 불신자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II. 영생에 대한 참된 이해

1. 생명의 양이 아니라 질을 말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사느냐, 그 삶의 질이 어떤 것이냐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요일 2:25, 요일 5:11).

2.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영생은 없습니다(롬 6:23, 눅 23:43).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영

생입니다.

Ⅲ . 영생 얻는 자의 자격

1.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 17:3).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알고 예수의 사역을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이 알고(체험하고) 십자가의 참 뜻을 이해하는 자에게 주어 집니다.

2. 믿음을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기록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1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Ⅳ. 영생 얻은 자의 삶의 자세(나그네 된 우리들 / 히 11:13-16)

1. 지나가는 길에 미련두지 말라
2.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3. 길에 서서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지 말라
4. 자주 길을 확인하고 물어야 한다.
5.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말라
6.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투자해야 한다.

맺는 말

영생은 죽음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부터가 영생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오늘의 생, 그것이 영생으로 발전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활, 그리스도에 충실하는 생활, 그 자체가 영생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 39 과

구약성경의 구성 개관

읽을 말씀 / 시편 19장 7-14절

찬 송 / 209, 235장

지난 10개월 동안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중심사상을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그 내용을 점점함으로 인하여 보다 성경에 친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문맹도 있고 컴맹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맹도 있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성경에 대하여는 무지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은 풍월이 있어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 무식하기 때문이며,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며,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며,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며 게으름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면서도 별로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중심이어야 하며 크리스천은 성경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교회나 크리스천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흔히들 사회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공부하기 이전에 성경의 구조를 배워야 합니다. 건축술이나 항해술을 배우려면 먼저 건물의 구조나 배의 구조를 익혀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구조를 먼저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I. 구약성경의 구성과 이름

1. 율법서(5)

● 창 세 기 ● 출애굽기 ● 레 위 기 ● 민 수 기 ● 신 명 기

2. 역사서(12) - 이스라엘 역사

● 여호수아 ● 사사기 ● 룻기 ● 사무엘상 ● 사무엘하 ● 열왕기상
● 열왕기하 ● 역대상 ● 역대하 ● 에스라 ● 느헤미야 ● 에스더

3. 시가서(5) -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중요원리

● 욥기 ● 시편 ● 잠언 ● 전도서 ● 아가

4. 선지서(17) -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비전

1) 대선지서(5)

● 이사야 ● 예레미야 ● 예레미야 애가 ● 에스겔 ● 다니엘

2) 소선지서(12)

● 호세아 ● 요엘 ● 아모스 ● 오바다 ● 요나 ● 미가 ● 나훔

● 하박국 ● 스바냐 ● 학개 ● 스가랴 ● 말라기

II. 구약성경에 대하여 복습해 봅시다

1. 율법서는 모두 몇 권입니까?
2. 역사서는 모두 몇 권입니까?
3. 시가서는 모두 몇 권입니까?
4. 예언서는 모두 몇 권입니까?
5. 구약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성경목록가

제 40 과

신약성경의 구성 개관

읽을 말씀 / 요한복음 20장 30, 31절
찬 송 / 241, 163절

I. 성경의 구성

1.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a. 구약 -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 b. 신약 -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예언서
2.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3. 성경은 BC 1500 - AD 100년 사이에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4. 성경은 약40명의 기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5.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a. 구약 - 구속주 메시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 b. 신약 -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에 관하여

II. 성경을 주신 목적

1.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 (암3:7, 4:13)
2.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요5:39)
3.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딤후3:15)
4. 마음의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마4:4)
5. 생애의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하여 (딤후3:16)
6. 죄악의 방패가 되기 위하여 (시119:9)
7.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 되기 위하여 (사8:20)

III. 신약 성경의 구성과 이름

1. 복음서(4) - 복음은 율법의 완성
 -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2. 역사서(1) - 초대교회 역사
 - 사도행전
3. 서신서(書信書, 21) -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중요 원리
 - 1) 바울서신(13)
 - 로마서 ● 고린도전서 ● 고린도후서 ● 갈라디아서 ● 에베소서

- 빌립보서 ● 골로새서 ● 데살로니가전서 ● 데살로니가후서
- 디모데전서 ● 디모데후서 ● 디 도 서 ● 빌레몬서

4. 히브리서(저자미상)

- 히브리서

5. 공동서신(7)

- 야고보서 ● 베드로전서 ● 베드로후서 ● 요한일서 ● 요한이서
- 요한삼서 ● 유 다 서

6. 계시록(1) -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비전

- 요한계시록

IV. 신약 성경에 대하여 복습해 봅시다.

1. 복음서는 모두 몇 권입니까?
2. 역사서는 모두 몇 권입니까?
3. 서신서는 모두 몇 권입니까?
4. 예언서(계시록)는 모두 몇 권입니까?
5. 신약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제 41 과

구약성경의 주제

읽을 말씀 / 창세기 3장 15절
찬 송 / 85, 278장

성경은 각 권마다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중심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의 주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찬양하면서 성경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 구약은 4 부분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 율법서의 주제 - 선민의 도덕 생활, 신정하의 선민이 지킬 윤리

- 창세기 /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 계획의 시작
- 만물의 시작(Election)
- 출애굽기 /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됨
- 애굽에서의 해방(Redemption)

- 레위기 /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
 - 제도와 법(Sanctification)
- 민수기 /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함
 - 광야에서의 방황(Direction)
- 신명기 / 순종을 위해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 율법의 재해석(Instruction)

II. 역사서의 주제 :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준비

- 선민의 국가 생활, 선민의 윤리 관점에서 정치생활 기술

성지의 정복(여호수아), 억압의 극복(사사기), 한 왕의 통치 하에서 나라가 견고해짐(사무엘상), 확장됨(사무엘하), 발전을 이룸(열왕기상), 민족이 국외로 추방(열왕기하), 성전의 파괴(역대상하), 성전 재건(에스라), 나라 재건(느헤미야), 포로 생활에서 진멸 당할 백성 구출됨(에스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땅에 돌아왔는데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준비키 위한 것임(눅 1:32, 35)

- 여호수아 / 약속의 땅에서의 승리
 - 이스라엘의 가나안 소유
- 사사기 / 약속의 땅에서의 실패
- 룯기 / 신실한 며느리 이야기
- 사무엘상 /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시작됨
 - 이스라엘의 안정화
- 사무엘하 /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 다윗
 - 이스라엘의 확장
- 열왕기상 / 솔로몬 왕 - 성전 건축 - 왕국의 분열

- 이스라엘의 영화, 분열,

- 열왕기하 / 분열된 왕국과 선지자들

- 북왕국의 타락, 남왕국의 추방

- 역대상 /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 성전의 준비

- 역대하 /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실패 - 성전의 파괴

- 에스라 / 포로 생활에서 돌아옴, 새 출발 - 성전의 복구

- 느헤미야 /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당시의 고충 - 예루살렘의 재건

- 에스더 / 유대인들을 구한 에스더의 용기 -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

III. 시가서의 주제 :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소원

- 선민의 영적 생활, 영적 체험을 표현

- 율기 / 경건한 사람이 겪는 고통에 관한 대화

- 그리스도의 중보를 열망

- 시편 /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솔직한 응답

- 그리스도와 교제를 열망

- 잠언 / 삶의 지혜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열망

- 전도서 / 세상에 대한 철학적인 제시

- 인생문제의 궁극적인 만족을 열망

- 아가 / 사랑의 시 -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 열망

IV. 예언서의 주제(히 10:7-그리스도)

- 선민의 장차 오실 메시아 대망 생활

- 이사야 / 희망적인 예언 - 그리스도 오심을 통한 세계적 구원 예언

- 예레미야 / 비극적인 예언 -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의 재확인

- 예레미야 애가 /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징벌에 대한 슬픔의 시
- 에스겔 /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예언 -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회복을 기대
- 다니엘 /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예언 - 정치적 회복을 예언
- 호세아 / 사랑의 예언
- 요엘 /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을 예언
- 아모스 / 공의에 관한 예언
- 오바다 / 멸망에 관한 예언
- 요나 / 회개에 관한 예언
- 미가 / 왕국 회복에 관한 예언
- 나훔 / 보복에 관한 예언
- 하박국 / 의심과 믿음에 관한 예언
- 스바냐 / 심판에 관한 예언
- 학개 / 헌신에 관한 예언
- 스가랴 / 예루살렘 회복에 관한 예언
- 말라기 / 주의 날을 기대하는 예언 - 사회적 도덕적 재건 권면

※ 주의 사항

위 주제들은 단지 지침이 되도록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된 내용들이 해당 성경의 유일한 주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들은 각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42 과

신약성경의 주제

읽을 말씀 / 누가복음 24장 44-49절
찬 송 / 403, 102장

- ▶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한 마디로 말해 '그리스도' 입니다(눅24:44).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으로 '구약의 연속과 완성'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전파'
서신서는 '그리스도를 설명'
계시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 을 말해 줍니다.

I. 복음서 :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묘사하는데 이들 중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Synoptic Gospels)이라 부르며, 그 이유는 시간과 장소의 배열이 같으며 문체와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 마태복음 / 약속된 메시야에 대한 가르침
 - 유대인을 위한 천국복음
- 마가복음 / 권세있는 구세주의 사역
 - 로마인을 위한 능력복음
- 누가복음 / 인간을 사랑하시는 구세주의 관심
 - 헬라인을 위한 인자복음
- 요한복음 / 구세주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 교회를 위한 영적복음

II. 역사서 :

신약에서 역사서는 사도행전 단 한 권 뿐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으로부터 이방으로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고 성령에 불들린 사람들이 이루는 거대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 사도행전 / 부활하신 구세주에 대한 증거
 - 교회 속에 계신 그리스도

III. 서신서 :

신약 27권 중에서 서신서는 21권 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서신이 14권(히브리서를 포함할 경우)이며 공동서신은 7권입니다. 특히 바울서신의 중요성은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데 있습니다. 또 이들은 대부분 구약의 예언자처럼 개척자적 새로운 표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로

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The Prison Epistles)이라 부르며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The Pastoral Epistles)으로 부릅니다. 서신서들은 보편적으로 전반부에는 교리 부분과 후반부에는 실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로마서 /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적용됨
- 고린도전서 / 교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음
- 고린도후서 / 교회의 사역
- 갈라디아서 / 복음과 율법이 대조됨
- 에베소서 /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 빌립보서 / 교회에 대한 사랑과 충성
- 골로새서 /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
- 데살로니가전서 / 새로운 회심자들을 격려함
- 데살로니가후서 / 그리스도의 재림
- 디모데전서 / 교회 생활에 관한 교훈
- 디모데후서 / 목회자를 위한 격려
- 디도서 / 그리스도인의 자기 절제(self-control)
- 빌레몬서 / 사랑과 용서를 구함
- 히브리서 /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공동서신은 일반서신으로 부르기도 하며 어떤 특정한 교회나 개인을 상대로 기록한 서신이 아니라 교회 일반에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 야고보서 / 살아있는 믿음을 위한 실제적인 교훈
- 베드로전서 / 교회가 당하는 고통이 설명됨
- 베드로후서 / 교회가 당할 위협이 예고됨
- 요한일서 / 거룩한 교제의 실제

- 요한이서 / 진리와 동행하는 삶
- 요한삼서 / 진리 실천의 삶
- 유다서 / 교회 내에서의 배교행위가 정죄됨

IV. 예언서 :

계시록은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교회의 주님(5:5, 6), 역사의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당시의 시련과 핍박 속에서 속히 될 일을 보임으로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요한계시록 /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 주의 사항

위 주제들은 단지 독자들에게 지침이 되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각각의 주제들이 해당 성경의 유일한 주제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한 사항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